

담뱃값 인상에... 외국산 판매율 국산 추월

담뱃값 인상의 충격과 이 기회를 틈 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춘 외국산의 공세에 밀려 국산 KT&G의 점유율이 4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산 담배 판매 규모가 외국산에 뒤진 것은 지난 1986년 필립모리스 '말보로'가 외국산 담배로서 국내에 첫 상륙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KT&G 판매량 기준으로 38%까지 추락=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가 지난달(1월 1~29일) 매출 기준으로 담배 제조사별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KT&G는 43.2%에 그쳤다. 이어 필립모리스(24.4%), BAT(23.4%), JTI(9%) 등의 순이었다.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56.8%로 KT&G를 무려 13.6%포인트나 앞선 것이다.

금액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KT&G의 위축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수량 기준 KT&G의 점유율은 38.3%, 외국산은 이 보다 23.4%포인트나 높은 61.7%에 이르렀다.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JTI(제팬 토바코 인터내셔널)의 개별 비중은 각각 21.1%, 29.8%, 10.8%로 집계됐다.

◇저가 공세 BAT 점유율 한달 새 7~11%포인트 뛰어=더구나 이 같은 국산, 외산 담배 점유율 역전 현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매우 급작스런 변화다.

B 편의점의 작년 12월 점유율 조사에서 KT&G는 매출 기준 53.1%, 판매량 기준 54.5%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평균 80%(2천원) 오른 뒤 한 달만에 점유율이 매출 기준 6.9%포인트, 수량 기준 14%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A 편의점 통계에서도 1월 KT&G의 시장 비중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1.6%포인트(매출 기준), 18.1%포인트(판매량 기준) 곤두박질쳤다.

B 편의점 집계에서 BAT의 1월 판매량 점유율(25.30%)은 한 달 사이 무려 11.2%



국산 담뱃값 인상의 충격과 이 기회를 틈 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춘 외국산 담배가 편의점 판매 등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편의점 담배 판매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말보로 상륙 후 29년만에 처음 KT&G 판매량 38%까지 추락 저가 공세 BAT 점유율 11%P ↑

포인트나 뛰었다. 수량 기준으로만 보면, 오히려 0.8%포인트 떨어진 필립모리스(22%)를 찾히고 외국산 담배 1위에 오른 셈이다.

◇'낮했다 올리는' 외산 담뱃값 빈축... KT&G "담배사재기 걸친 특수상황" = 이 같은 국산·외산, 외국산 담배 제조사별 점유율 순위가 뒤바뀐 가장 큰 이유는 외국 담배업체들의 '발빠른' 담배 가격 마케팅이 일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BAT코리아는 지난달 15일부터 보그 시리즈를 갑당 3천500원에 내놨다. 기존 가격보다 1200원 오른 것이지만, 국산 주요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나뉘던 데 비해 인상 폭이 작다.

아울러 BAT는 오는 4일 선보이는 보그 새 패키지와 캔트 컨버터블의 가격도 국산 주요 담배보다 200원씩 43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주력 제품인 말보로, 팔리아멘트 값을 47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춰 팔기 시작했다. 200원 정도였던 국산 담배와의 가격 격차를 완전히 없앤 것이다.

29년만에 안방을 내준 KT&G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KT&G 관계자는 "지금까지 점유율이 50%대 초중반까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5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며 "올해 1월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인구 증가, 작년말 담배 사재기, 외국산 담배 저가 공세 등이 걸친 특수한 상황으로, 이 같은 소매점 판매 추이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월 증시 전망

ECB 양적완화 확대... IT가전·건설 주목

<유럽중앙은행>

연초부터 코스피지수는 1900선을 두 차례나 하회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 국제 유가(WTI는 5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더욱 강화시켰고, 코스피지수가 1900선 이하로 하락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ECB(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1950선을 탈환했지만 여전히 업종별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을 돌아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은 은(+13.9%)이 유일했다. 아울러 유로화와 최저 환율 연동제를 폐지했던 스위스 프랑은 +8.4%를 기록하며 뚜렷한 강세흐름이 이어졌고, 강달러(+4.8%) 기조 또한 흔들림이 없었다. 금(+8.0%)과 주요국 국채의 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선 독일(+9.2%), 인도(+7.5%)와 함께 코스닥(+9.5%)의 상대적 강세가 특징적이었다.

2월 국내 증시는 1880~1980 포인트 박스권을 예상한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의 접근을 추천한다. 지난 1월 유럽중앙은행은 총 1.14조 유로, 매일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을 결정함에 따라 일련의 우려들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했다. 그간 코스닥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여며 지수

간의 갭이 크게 벌어진 상황하기에 괴리율 축소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예상되는 1-4분기 실적개선 종목이 주로 경기민감 대형주라는 점 또한 코스피 대형주 강세를 점치는 요인이다.

수급측면은 우호적이지 않다. 통상 3월 동시분기 이전까지 지난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됐던 자금이 지속 유출되기 때문이다. 현금화를 검토하는 투자자라면 월 초에 박스권 상단인 1980포인트 도달시 현금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 매수를 검토하는 투자자라면 시기를 조금 늦춰 보기를 제안한다. 주요 기관들의 경우 최근 공모형 펀드의 환매는 감소하고 일임형 펀드의 자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내 주요 기관들은 주식 비중 확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가전, 건설, 기계, 통신서비스 등의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증권, 화학 등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 유로화 약세 국면에서 선호 받았던 섹터는 IT와 자동차였다. 원화 강세로 단위별 환산 이익의 감소를 수요 개선에 의한 매출 및 이익증대가 커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가 재연될 지는 의문이다. 수요가 부진한 글로벌 저성장지 문제이다. 따라서 우호적인 ECB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보다는 철저히 실적에 근거한 선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본부장 상무

최근 들어 유가의 변동성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심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는 한 주만에 60기 이상 감소하기도 했으며, 제임스 윌리엄스 WTRG 에너지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한 시추 붐(Boom)은 끝날 것"이라며 "전체 시추 업체는 3월이나 4월까지 1000기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하락'과 '바닥확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유가 바닥론을 염두한 관련 펀드, ETF 상품으로 점차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중국 상해 시장은 기간 조정에 진입한 양상이며, 아직 중국본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조정을 활용하여 매수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 로또 판매수입 10년만에 3조원 재돌파

3조996억원... 1년전보다 4% 증가

정부가 지난해 온라인복권(로또)을 판매해 얻은 수입이 10년 만에 3조원을 다시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로또 판매 수입은 3조996억원으로 1년 전(2조9798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또 판매 수입은 로또 출시 직후인 2003년 약 3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4년에는 약 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로또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면서 판매수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연속으로 2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로또 판매수입은 전체 복권 수입의 90%가 넘는다.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수입은 3조3364억원으로 이중 92.9%(3조996억원)가 로또, 인쇄복권이 6.3%(2100억원 내외), 전자복권이 0.8%(240억원 내외)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수입은 전년(3조2234억원)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로또(4.0%) 및 전체 복권(3.5%) 판매수입 증가율은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3%를 웃돌았다.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생활이 팍팍해진 중산층·서민이 '대박'을 꿈꾸고 복권을 많이 사들인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을 저점(약 2조2000억원)으로 로또 판매수입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 동향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복권 판매수입을 최종 결산한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여수서 보험범죄방지 캠페인

생명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우승)는 지난 30일 여수 버스충터터미널 일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 보험범죄 조사원 등과 함께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생명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희망가격 제시 하십시오 가능한 매매 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 지하 - 51평, 상가
- 1층 - 41평, 상가
- 2층 - 46평, 사무실
-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